



프로폴리스의 위력

두리원 대 표 김 해 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지난호이어서-

10. 류마티스 관절염

1. 관절염은 무서운 병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사는 박○○ 아주머니 한 분은 10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여 화장실에도 가기가 어렵게 되자 "우리 어머니의 병은 자식인 우리가 고치겠다"고 하면서 의대, 약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어 개업까지 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관절들은 모두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 했다.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에 사시는 곽○○ 아주머니는 필자의 저서 [건강으로 가는 길]을 읽고 많은 공감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7년간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고, 모든 관절이 굳어져 있어서 사람이 나무토막같이 되어버린 것이 자신의 몸이라고 했다.

걸지 못하는 사람은 걸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이고, 걸음 걸이가 서툰 사람은 정상적인 걸음 걷는 것이 소망이다. 이 아주머니의 소원은 걷는 것도 아니고, 등을 벽에 붙이고서라도 한번 앉아 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환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병이다. 그래도 통증이라도 없으면 다소 괜찮겠지만, 여기에 통증까지 수반되자 보니 이중삼중의 고통까지 겪게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심한 관절염도 고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하겠지만, 이미 굳어진 관절이라면 약만으로는 안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치료방법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오래되었으면 어렵다.

혈액순환, 보온, 소염, 독소배출, 세포기능의 활성화, 체질 개선 등의방법을 적용시켰을 때 두 달만에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서 기쁘다고 했지만, 완전 하 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병은 발병되었을 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하지 않게 하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96년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질병 가운데 위장병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관절염이라고 했다.

위장병환자가 전국민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관절염 환자가 위장병 환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그 숫자는 100만명이나 된다. 20년 전에 없었던 관절염 환자가 이렇게 많아졌는 데도 아직까지 학술적인 원인규명은 되어 있지 않다.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으므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원인 규명은 되어 있지 않다.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으므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원인 규명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원인 없이 10년 전인 86년도 "토양의 병은 육체의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했고, 미네랄은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는 농사가 아니고, 빼앗은 농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앞으로 관절염 환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이 적중되고 있다.

토양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높아진다 해도 정백된 식생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미네랄의 성분은 식물의 껍질 층에 함유되어 있다. 이것을 먹지 않는 한 튼튼한 뼈를 갖기는 어렵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네랄이 칼슘이므로 칼슘이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칼슘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칼슘을 보조할 수 있는 다른 미네랄 역시 필요하다. 합성된 칼슘이 아닌, 동물의 뼈나 어류의 뼈를 평소 꾸준히 먹어 주어도 뼈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굴껍질을 분쇄하여 빵에 넣으면 빵의 보관력도 높일 수 있고, 뼈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일본 농무성 식품 종합연구소에서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이 글을 읽기 수년전부터 필자 나름대로 2년간이나 연구한 적이 있다. 굴껍질을 물에 넣고 두면, 6개월이 지나도 물은 변질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빵의 변질을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 대신 문제되는 것은 강한 계산작용이다. 이것을 잘못사용하였다가는 위장을 모두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연구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소화에 지장을 주는 성분 이 규산(Si)이라는 것도 알아내었다.

위장에 장애만 없다면, 조개껍질을 이용해도 관절염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평소 다시마, 미역, 멸치 등을 많이 섭취하고 5분도의 쌀을 갖고, 주식으로 해주면 관절염이나 성인병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방법을 사용해도 가벼운 관절염은 간혹 낫는 수가 있다. 이렇게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는 성분의 부족으로 관절염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의 한 의서 가운데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참된 명의가 아니고, 병의 발생원인을 알아 병 발생을 사전에 막아주는 의사가 참된 명의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명의가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2. 염(炎)을 잡아야 관절염(류마티스, 퇴행성)이 낫는다

한가지 일에 몰두하다보면 꿈을 꾸어도 그와 연관된

꿈을 꾸다. 영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꿈을 꾸어도 영어로 하는 꿈을 꾸다고 한다.

필자는 꿈을 꾸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류마티스라 연관된 꿈을 꾸어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책만 보아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시키고, 생각만 해도 류마티스를 결부시키면서 생각해 왔다.

그런지 18년, 제조업체(건강보조식품생산업체)를 가진 지 12년 만에 "염(炎)을 잡아야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이 낫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류마-21]을 개발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대 희랍에서는 콧물과 같이 흘러내려서 생기는 병이라 하여 류마(Rheuma)라고 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원은 Rheuma이다. 21을 류마티스 관절염을 21년간 앓았던 사람이 개발했다 해서 [류마-21]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원료는 감각류의 껍질에 들어 있는 키토산, 키토산의 흡수율을 높여 좋은 키토올리고당, 상어연골, 프로폴리스가 주종이다. 이 외에 항산화물질도 첨가되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세포막이 약해지면서 활성산소(유해물질)나 젖산과 같은 유해물질에 미세한 상처를 입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염(炎)을 유발시킨다. 그 힘이 집단화될 때 류마티스를 발병케 한다. [염(炎)을 잡아야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는다(두리원) 참고]

"칼에는 칼" "창에는 창"이라는 말이 있지만, 껍질을 식문화에서 정백음식문화로 바뀌어지면서 관절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특수 껍질이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칠 수 있다는 이론이 정립된다.

프로폴리스는 식물의 껍질에서 채취된 진액 물질이고 키토산은 바다의 감각류의 껍질에서 추출된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식물의 기(氣)와 바다의 기가 결합되어 있다.

뼈 부러진 데는 뼈 곱탕이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연골이 상해져 있는 관절염에는 연골성분이 좋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연골 안에는 콘드로이틴(Chondroitin)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관절염도 모세혈관과 세포사이에 있는 결합조직이 나빠지면서 발병케 된다. 그것을 나쁘게 만드는 효소가 콜라게나제(Gollagenase)이다. 그것을 치유시킬 수 있는 성분이 콘드로이틴이다.

이런 복합 성분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류마-21]이다. [류마-21]이 개발되기 전에는 관절염환자들에게 몇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해 왔다. 그것을 2~3개월 사용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지금은 [류마-21] 하나만 먹어도 그 때 몇가지 사용했던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약해져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키는 [바이오플랜]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는 더 분명해진다. 30대 초반까지는 4~5개월에 완치되는 예도 많다.

15년간 몇몇 신문에서 모아둔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자료 가운데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의 병이고,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 글도 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변형만 되지 않았

으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영업사원도 두지 않고, 거래처도 두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이 있었고, 이것이 또한 새벽기도 때의 기도제목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획기적인 제품까지 개발케 하신 것이다.

이 제품을 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두리원) 제품을 드시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염(炎)을 잡아야 류마티스 관절염 낫는다]는 책이 대형서점에서 꾸준히 판매되기 때문이다.

공장을 가진 지 12년만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고, 사무실 직원도 한 사람에서 몇 사람으로 늘어났다.

관절에는 키토산도 좋고, 상어연골도 좋지만, 프로폴리스로 인해 효과가 더 증진 된 것이다.

프로폴리스를 취급한 지 16년이 되어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제조공업상 특허(제조발명특허출원 52389호)까지 출원해 놓았다.

3. 연골은 재생된다.

프로폴리스만으로는 연골이 재생되지 않지만, [류마-21]은 연골이 재생된다.

뼈에는 20% 정도의 수분이 들어 있고, 혈액도 통한다. 그러나 연골에는 혈이 안 통하는 대신에 수분은 60~80%를 갖고 있다. 동물의뼈는 씹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연골은 연하다는 뜻에서 물렁뼈라고도 한다.

콩나물은 물만 먹고 자라듯이 연골도 수분이 많을 때 재생된다. 근래에 와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급격히 많아진 것도 관절에 수분이 적어져 연골의 마모가 급격히 이루어진 데서 온다.

연골이 스폰지와 같은 작용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데는 프로테오글라이칸(Proteoglycans)이라는 성분이 주작용을 한다. 이 성분 역시 연골 속에 많이 함유하고 있다.

[류마-21]이 류마티스 관절염만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가 높은 것은 이러한 작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11. 피가 맑으면 만병을 다스린다

1. 봉산물도 만병을 다스린다

1) 벌침과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 속담에 "병은 한가지인데 약은 천가지도 넘는다"는 말이 있다. 실지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 주위에서 "어디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되고, "그 병에는 무엇을 쓰면 고칠 수 있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

이런 말을 듣고 구입하다 보면 끝이 없다. 필자가 20년간 관절염을 앓으면서 찾아가던 곳 만도 수십 곳이 되고, 좋다고 해서 구해먹은 것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 그 중에 많이 와전되어 남을 속이고 있는 것이 고양이이다. 고양이가 좋다는 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지만 고양이 먹고 고친 사람은 아직 만나



보지 못했다. 고양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칠 수 있는 약리작용이나 영양학 작용은 없다."그 병에 무엇을 해 먹으면 좋다"고 할 때는 "당신 그것을 먹고 고쳤습니까?"하고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절염에 뜬이 좋다해서 아픈 관절마다 뜬을 떠서 외형적으로 몸을 버려 놓은 사람도 볼 수 있다. 체내 저항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시초에 한 두 곳 아플 때는 그 부위에 뜬을 뜨면 많은 백혈구가 집결되어 류마티스 인자와 싸워 이길 때는 병이 낫게 된다. 그와 반대로 체내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여러 부위에서 아프면 뜬만 가지고는 고칠 수 없다. 이것은 뜬만이 아니고 벌침도 마찬가지다. 전신관절에 류마티스가 왔고, 연골이 파손되었거나 골다공증에 류마티스까지 왔다면 벌침이나 뜬만으로는 어렵다.

필자의 어머니는 소녀 시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6개월간 쑥뜸을 떠서 고쳤다. 쑥뜸은 청혈작용과 백혈구를 모여들게 해서 고치는 원리라면, 벌침은 소염, 살균, 청혈 백혈구까지 모여들게 해서 고치므로 뜬보다는 효과가 더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초이고, 체내 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끈기있게 맞으면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관절염에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류마티스 전문의가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고양이나 벌침은 효과가 없다고 단호하게 쓴 글을 보고, 뜬은 효과 없다고 쓰지 않고, 벌침만 넣었을까? 전신에 뜬을 떠서 수십 군데 흉터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수 십명은 보았을 것인데...

뜸이 효과 없다고 쓰지 못한 것은 한의사들의 파워가 너무 크고 그들이 임상 자료를 갖고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쓰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리 나라에서 벌침을 갖고 시술하는 사람이 시·군마다 몇 사람씩은 있지만, 그들은 무면허이기 때문에 벌침을 갖고 류마티스 환자를 고쳐도 고쳤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양봉학 328p에 봉침독(蜂針毒) 항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 본다.

"1879년부터 40년간 봉침독 치료에 공헌해 온 오스트리아 사람 테레(Tere)는 류마티스 및 그 유사증에 치료한 670명 중에서 완치가 83%, 반 치유가 15%, 무효가 2%이었음을 발표하였다. 1952년 독일의 암 연구소 안톤(Anton)은 직업별 암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00사람 중에 대한 발생율이 양봉가 0.36에 대하여 양조업자 4.6, 제과업자 2.3, 농민 2.1, 의사 2.0, 건축가 1.9, 공업 노동자 0.6이었다.

봉침독 요법의 권위자 무라스는 봉침독은 신경통 류마티스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암에 대한 치료 효과도 발표했다.

서독의 하인리히의 마크샤(제약회사)에서는 1,400군의 벌통을 사양하여 연간 15kg의 봉독을 채취하여 호바빈(제법 특허)이라는 주사제를 만들어 신경통 류마티스에 특효약으로 개발시켰다. 참고(양봉계 68년 8월호)

지금까지 알려진 봉침독의 약리 및 생리작용은 아래와 같다.

1. 류마티즘
2. 혈압 강화
3. 강력한 살균작용
4. 혈액 중의 임파구 및 적혈구 재생과 증가
5. 부신의 아드레날린 촉진
6. 국소의 충혈작용 및 혈액 환류의 개선

국내 의사들 가운데 봉독을 갖고 관절염을 치료하는 의사는 몇 사람 정도 밖에 안되는 줄 안다. 그분들이 수 십명만 되었어도 그러한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는 건강 때문에 양봉을 시작하면서 20년간 많은 벌들로부터 쏘였다. 고치지는 못했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벌침은 아픈 부위에다 바로 놓았을 때 효과가 있다. 필자는 여섯 관절이 아팠는데 아픈 부위의 관절에 벌침을 계속 놓았더라면 나의 건강은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심할 때마다 아픈 부위에 쏘이곤 했다.

2) 만성병에는 청혈 작용이 중요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적용되는 약이 수백 가지가 되어도 고칠 수 있는 작용의 원리는 청혈, 독소배출, 소염, 항균, 저항력 강화(체질개선이 됨), 보온(몸을 덥게 하여 주는 것)이다. 이 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다.

모든 성인병(당뇨,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은 혈이 탁해지고, 체내 독소가 많아지면서 생겨나는 병이다. 피를 맑게 하여주고, 체내독소가 배출되면 성인병은 자연히 낫게 된다.

청혈과 독소배출은 다른 용어이지만, 인체에 적용될 때는 동일한 작용이 이루어진다. 피가 맑아지면 독소는 배출되어지고, 독소가 배출되면 피는 자연히 맑아진다. 이 두가지 중 하나만 철저히 이루어져도 성인병은 낫는다. 성인병은 초기에는 완전 치유가 가능해도 만성이 되었을 때는 어렵다. 그러나 합병증만 오지 않으면 활동하는 것이나 생명에는 위협이 없다.

암에는 여러 종류의 암이 있어도, 피가 맑아지고, 체내독소가 없어지고, 저항력이 강화되면 암은 자연히 낫게 된다. 암은 생명과 직결되는 병이 되어 무서운 병에 속하지만, 고치는 데는 도리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더 쉽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 필자 역시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

위의 학설은 의화계로부터 공인받은 학설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터득하기까지는 20년간의 투병생활이 있었다. 15년전 이것을 알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병과 투병생활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건강 전문서적 500권을 읽은 지식과 15년간 자연의학을 연구하여 얻어진 지식의 결합체다.

-다음호에 계속-